

“함께 걸으며 극복해요”... 광주시, 치매극복 걷기행사

자치구별로 진행... 바르게 걷기·느리게 걷기 통해 치매 인식 개선

광주광역시(시장 강기정)는 치매 인식 개선을 위해 자치구별로 '2025 한마음 치매극복 걷기행사'를 개최한다.

이 행사는 광주시와 전남대학교병원, 광주광역시치매센터가 공동주최하고 5개 자치구 보건소 치매안심센터가 주관한다. 프로그램은 ▲치매예방체조 ▲바르게 걷기 방법 안내 ▲느리게 걷기 체험 등으로 구성됐으며, 다양한 치매예방 홍보활동도 진행된다. 행사 당일 걷기 구간을 완주한 참가자에게는 소정의 기념품이 제공된다.

자치구별로 동구는 10월24일 푸른길분수공원에서, 남구는 10월30일 물빛근린공원, 북구는 11월4일 일곡제1근린공원, 광산구는 11월5일 경암근린공원에서 걷기

행사가 진행된다. 행사 시간은 오전 10시부터이며, 치매 예방에 관심 있는 시민 누구나 무료로 참여할 수 있다.

참가 희망자는 각 자치구 치매안심센터를 통해 사전 접수할 수 있으며, 당일 현장 접수도 가능하다.

서구는 앞서 지난 20일부터 휴대전화 응용 프로그램(애플리케이션)을 활용해 '일평균 9988보 걷기'를 목표로, 비대면 치매극복 걷기 행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를 달성하면 지역 취약계층 치매환자 가구를 위한 '1만원 기부권'을 받을 수 있다.

배강숙 건강위생과장은 “치매는 더 이상 개인의 문제가 아닌 지역사회의 공동 과제”라며 “이번 걷기 행사를 통해 시민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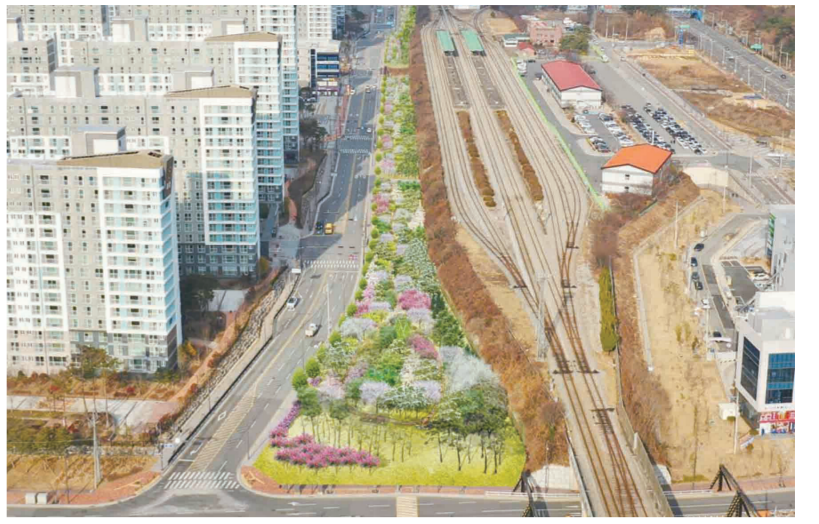
이 치매 예방의 중요성을 되새기고, 올바른 인식 확산에 동참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광주시는 5개 자치구 보건소 치매안심센터 운영을 통해 지역 내 치매 환자와 보호자를 지원하고 있다. ▲치매조기검진·예방 ▲치매치료관리비·위생소모품 지원 ▲맞춤형 사례관리서비스 ▲치매환자 컴퓨터 및 가족지원 프로그램 운영 ▲배회어르신 실종예방 지원 ▲치매안심마을 운영 등 주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치매예방은 ‘치매예방수칙 3·3·3’을 통해 일상에서 실천할 수 있다. ‘치매예방수칙 3·3·3’은 즐길 것 3개(운동·식사·독서), 참을 것 3개(절주·금연·뇌손상 예방), 쉼



길 것 3개(건강검진·소통·치매 조기 발견)이다. /이승원 기자



광주 남구, 빛고을 농촌테마공원에 '바람길 숲' 조성 4억4,400만원 투입, 연말까지 완공 예정

광주 남구(구청장 김병내)는 빛고을 농촌테마공원에 도심의 미세먼지 저감과 열섬 현상 완화를 위한 바람길 숲 조성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남구는 23일 “도시 외곽 산림에서 생성되는 맑고 시원한 공기를 도심으로 끌어와 대기순환을 촉진하고,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 물질 및 도심 내 더운 공기를 외부로 배출하기 위해 국·시비 4억 4,400만원을 투입해 바람길 숲을 조성한다”고 밝혔다.

도시 바람길 숲 조성은 산림청에서 지방자치단체에 국비 지원을 통해 추진하는 사업이다. 남구는 지난해 연말 산림청 주관으로 진행된 '2025년 도시 바람길 숲 공모'에 선정돼 빛고을 농촌테마공원에 바람길 숲 조성에 나선다.

앞서 지난 2021년과 2022년, 2023년에도 산림청 주관 공모사업에 선정되면서 효천1지구 녹지대 및 도로 주변에 미세먼지 차단 숲과 도시 바람길 숲을 조성한 바 있다.

남구는 이번 공모사업 선정으로 올

해 연말까지 빛고을 농촌테마공원 내 부지에 16,000㎡(4,848평) 규모로 바람길 숲을 조성할 방침이다.

바람길 숲은 'm'자 구조인 빛고을 농촌테마공원의 외곽 경계선을 따라 'c'자 모양의 숲으로 만들어진다. 숲의 전체 길이는 170m 가량에 폭은 100m 정도가 될 것으로 보이며, 'c'자 내부 공간은 푸른 잔디마당으로 채워진다. 아울러 숲길 나무 사이 사이에는 길이 280m 가량의 산책로가 들어선다.

현재 빛고을 농촌테마공원 부지에 그늘을 제공할 만한 큰 나무가 없어서 바람길 숲에 팽나무와 이팝나무 등 그늘목 위주로 나무를 심어 그림자 공간을 곳곳마다 마련할 계획이다.

남구 관계자는 “빛고을 농촌테마공원에 야영장도 조성하고 있기 때문에 해당 사업까지 완료되면 이곳은 광주 시민들의 휴식 공간으로 더 큰 사랑을 받게 될 것이다”고 밝혔다.

/임채일 기자

광주 동구(청장 임택)는 지난 9월 22일 발행을 시작한 동구 지역화페인 '광주동구랑페이'가 총 발행 규모 50억 원 중 28억 원 이상이 판매되면서 56%를 돌파했다고 밝혔다.

광주동구랑페이는 발행 첫날에만 1억 5천만 원 이상이 판매됐고, 이후 매주 판매고를 경신하며 시민들의 뜨거운 호응을 얻고 있다.

특히, 최근 제22회 광주 추어의 총장축제 기간에 광주동구랑페이로 당일 10만 원 이상 결제하고 영수증을 제출하면 5만

동구랑페이, 발행 한 달만에 28억 원 돌파

총장축제 페이백 이벤트 화제, 11월 2차 진행 예정

원을 되돌려주는 이벤트도 열려 시민들의 관심을 얻었다. 이 이벤트는 많은 지역 주민과 방문객들의 관심을 끌었으며, 광주동구랑페이와 가맹점에 대한 문의가 급증하면서 인지도를 높이는 중요한 계기를 마련했다.

또한, 광주동구랑페이의 가맹점 수는 현재 2839곳이 승인완료 됐으며, 승인 심

사 대기 중인 가맹점까지 포함하면 총 3,160개로, 모집 목표(5,000개)의 63%를 달성했다. 이를 통해 외부로 유출되던 소비를 지역 안으로 끌어들이어 이용자와 상인 모두에게 혜택을 제공하는 효과를 내고 있다.

이로써 동구는 지역화폐의 사용 촉진과 함께 지역 내 경제 활성화를 위한 중요한

첫걸음을 성공적으로 내디뎠다는 평가다.

임택 동구청장은 “내년에는 광주동구랑페이가 정책자금으로도 활용될 수 있게 하고, 주민들이 더 쉽게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 중이다”면서 “지역경제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정책을 강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광주동구랑페이'는 광주은행에서 구입할 수 있는 선불형 지역화폐다. 18% 할인된 금액으로 판매하며 사용기한은 구입일로부터 5년이다.

/오철수 기자

“함께 일하고, 함께 배우며, 함께 행복을 나누는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광주시 서구(구청장 김이강)가 어르신들이 '일'을 통해 삶의 의미와 행복을 새롭게 발견할 수 있도록 돕는 특별한 교육을 진행했다.

서구는 15일~22일 4차례에 걸쳐 서빛마루문화관에서 노인일자리 참여 어르신 1200여 명을 대상으로 교육과 토크 콘서트가 어우러진 '합동 소양 및 활동 교육'을 개최했다. 이번 교육은 단순한 근로 지침 전달에서 벗어나 감동과 공감, 자존감 회복을 주제로 한 '콘서트형 소양 교육'으

서구, 노인일자리 교육에 '행복'을 더하다

강연과 음악 어우러진 소양교육... 어르신 삶의 활력 되찾아

로 진행돼 큰 호응을 얻었다.

1부 교육은 나명진 광주보건대학교 교수가 맡아 '작은 실천이 큰 행복: 무력감이기는 생활법'을 주제로 강연을 펼쳤다. 나 교수는 “행복은 일상의 작은 선택에서 비롯된다”며 일의 의미를 되찾고 마음의 활력을 회복하는 방법을 제시했다.

이어진 2부는 김이강 서구청장이 직접

‘함께 살아가는 힘, 배려 그리고 행복’이라는 주제의 토크 콘서트를 열었다. 김 청장은 “일자리 교육이 근로 역량을 높이는 자리를 넘어, 세대 간 연대와 배려의 가치를 배우는 시간이어야 한다”며 “국가 발전을 이끌어온 어르신 세대가 이제는 일의 보람 속에서 행복을 되찾고, 함께 살아가는 행복한 공동체를 만들어가야 할 때”라고 강

조했다. 이날 김 청장은 김혜일 행복협력관과 기타와 피아노 연주를 함께 선보이며 따뜻한 분위기를 더했다. 이번 교육은 단순한 근로 중심의 교육을 넘어 어르신 스스로 삶의 의미와 행복을 되돌아보는 '자존감의 교육'으로 확장된 것이 특징이다.

한편 서구는 '함께서구 행복학교'를 통해 부모와 아이들에게는 경정이 아닌 진로 중심의 교육을 지원하고, 어르신들에게는 자립과 사회참여를 돕기 위한 노인일자리 사업을 지속 확대하고 있다.

/박석우 기자

광주시 북구(구청장 문인)는 오는 24일 취약계층의 자립을 돕는 자활기업 제품을 주민들에게 선보이는 '소소마켓' 행사를 개최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자활사업 참여자들이 만든 제품을 한자리에 모아 홍보 및 판매하여 자활생산물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판로를 확장하고자 지난 2021년부터 매년 추진되고 있다.

올해 '소소마켓'은 북구 지역자활센터 3곳(동신·일터·희망)과 협업하여 운영하고

북구, 자활기업이 만든 제품 경험해보세요!

24일 우산동 '더드림채움장터'에서 올해 마지막 '소소마켓'

있으며 현재까지 자활생산물 전용 판매장인 '더드림채움장터'(면앙로 77)와 북구청광장 등에서 총 세 차례 진행됐다.

작년과 달라진 점은 기존까지 북구 소재 자활사업단들 중에서만 참여기관을 모집했던 방식에서 동구·서구 등 타 자치구

자활사업단까지 참여 대상으로 확장해 더욱 폭넓게 자활생산품을 소개할 수 있게 됐다. 올해 남은 마지막 행사는 총 19개 자활사업단이 참여한 가운데 오는 24일 오전 11시부터 '더드림채움장터'에서 열리며 행사장은 ▲플리마켓 ▲체험 부스 ▲떡거리

리 장터 등으로 구성된다.

플리마켓에서는 자활근로 참여자들이 손수 만든 수공예품·뜨개용품·수제청 등 11종의 제품을 만나볼 수 있으며 비누·머리핀·고무도마 만들기 등 다양한 체험프로그램이 무료로 제공된다. 또한 행사 당일에는 '더드림채움장터'에서 판매 중인 물품을 최대 20% 할인된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으며 방문자에게는 경품 응모 및 사은품 증정 이벤트도 진행된다. /송현근 기자

1면에서 이어짐

국내에서는 '선화랑', '아트웍스퍼리서울', '공동화랑', '예술공간 집' 등이 참여해 김한기, 김강열, 백남준, 오지호 등 거장의 작품과 이이남, 허루K 등 젊은 작가의 작품이 함께 선보였다.

올해 전시는 세계의 특별전을 통해 미술의 세대 간 소통과 예술적 깊이를 조명한다.

'거장의 숨결' 전에서는 여수 출신 손상기 작가의 작품세계를 광주 최초로 조명하고, '프로포즈' 전에는 지역 컬렉터가 소장한 쿠사마 야요이, 무라카미 다카시, 강용운 등 23인의 작품을 공개했다. 또 '라이징 스타' 전에서는 공모를 통해 선정된 손지원, 정승희, 권예솔 등 청년작가들이 참여해 지역미술의 미래를 제시했다. /전광훈 기자

시민 참여형 프로그램도 다양하다. 전시장 곳곳에서는 컬렉터스 라운지·피블릭 라운지 등 휴식형 공간을 확대하고, 가족 단위 관람객을 위한 열쇠고리(키링)·직물(패브릭) 달력 제작 체험 부스를 무료 운영하는 등 시민 친화적 전시 환경을 조성했다.

올해 처음 도입된 VIP 티켓 제도는 전 기간 자유입장, 전용 라운지 이용, 전문 도슨트 투어 등 차별화된 혜택을 제공해 관람객이 깊이 있는 예술을 향유할 수 있도록 했다.

강기정 시장은 “아트:광주는 예술과 산업, 그리고 시민이 함께 만드는 문화의 장”이라며 “광주가 예술을 통해 도시의 미래를 디자인하고, 아시아 미술 교류의 중심으로 도약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전광훈 기자

